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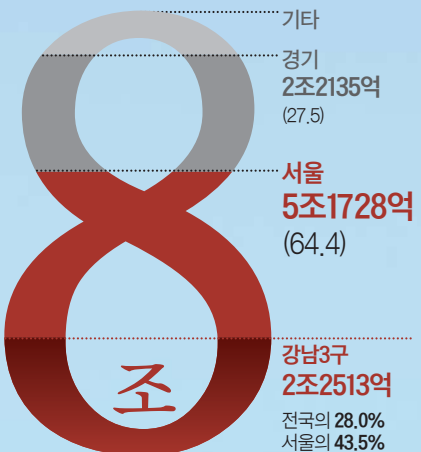
정부가 주식 외쳐도 국민은 집 바라본다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5월 계약을 마쳤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약 10억원을 적어냈다는 김씨는 “주식이 이렇게 대박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집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에 쏟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며 나섰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다.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올해 들어 7월까지 8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 서울과 고가 주택 매입에 특히 집중됐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7월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8조334억원이다. 2022년 1조원대에서 2024년 3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조8205억원을 기록했

주식·채권 팔아 집 사는데 8조 사용



단위: 원, () 안은 비중 % ※2026년 1~7월 자금조달계획서상 주식·채권 매각대금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1~7월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
지난해 5조8000억 이미 넘어서
8조 중 92% 서울·경기로 들어감
증시 급등할 때 매각대금도 급증

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 전체 주택 매입자금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6.2%로 높아졌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만 따로 봐도 지난해 연간 5조7022억 원에서 올해 1~7월 7조6202억원으로 늘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집을 산다”는 말은 통계로도 증명됐다. 주택 구입에 쓰인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올해 1~3월 월 7000억~8000억원대였지만 4월 1조4946억원, 5월 1조9563억원으로 급증했다. 5월에는 전체 주택 매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까지 높아졌다. 4~5월 증시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때다. 6~7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월 1조원대 초반을 이어갔다.

박현주 기자

» 3면 ‘부동산’으로 계속

“203구 묻었는데… 60구 더” 시신 찾으려 병원 뱅뱅이도



변민철 기자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시신 돌곳 없어 천막 아래 수습
종교이유 시신 매장 안하지만
전염병 확산 우려에 집단매장

“아들 시신이라도 찾으러 왔어요…”

31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바랏푸르 치트완 임시 안치소에서 만난 사기아르(33)는 눈시울을 붉혔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5시간 정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이곳은 대홍수가 시작된 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에서 약 180km 떨어진 곳이다. 라수와의 트리술리강이 이 지역 나라야니강으로 이어져 있어 참사를 당한 이들의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하지만 시신들을 보관하거나 처리할 공간이 없어 네팔 당국은 바랏푸르 엑스포센터에 임시 안치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전염병 감염 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했고, 센터 앞에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사기아르의 아들(13)은 집안 살림을 돕겠다며 삼촌을 따라 라수와로 갔다가 실종됐다고 한다. 사기아르는 5일 동안 치트완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 전날 아들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기



비극 속 기적, 60시간 만에 구조된 6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에서 6세 여아 마니샤마가르가 구조되고 있다. 마가르는 건물 잔해와 진흙더미 아래에서 약 60시간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무장경찰 X 캡처]

다리고 있다. 그는 “이번 홍수로 아들을 포함해 가족 5명을 잃었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 아널(30)은 “트레킹을 갔다가 실종된 둘째 형님과 조카를 찾으러 왔다.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은 전부 다 확인하고 왔다”고 했다.

시신들은 이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바랏푸르 병원에서 소독 등 처리 작업을 거친다. 병원 주변 천막 아래 임시 공간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쌓여 있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도 있었다. 치트완·카트만두(네팔)=변민철 기자

윤지원·노유림 기자

» 8면 ‘네팔 대홍수’로 계속

의원직 못 놓는 용혜인…국힘 “가족소득당이나”

용혜인(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커지며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각과 진보 정당에서조차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시사하고,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소득당이나”(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판까지 불거졌다. » 관계기사 4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고속철도 통합!

불편은 확~줄고
혜택은 더~커진 새로워진 KTX를 만나보세요

